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ocial Withdrawal
: The Mediator Effect of Ego-resilience

김혜선(Hye-Seon Kim), 이지민(Jimin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ediator effects of adolescent's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 between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86 students of high schools located in 'D' city, Korea. Adolesc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y Memories of Upbringing(EMBU-short)', ego-resilience, and 'Korean Youth Self Report(K-YSR)' scales. The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by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while the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the ego-resilience had a direct effect on the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or effect of the adolescent's ego-resilience between the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In conclus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vent social withdrawal of adolescents and increase their ego-resilience.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애정적 양육태도(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매개효과(Mediator Effects)

I. 서론

최근 소외(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과 같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집단따돌림의 대상을 의미하는 '왕따'와 같은 은어가 생겨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왕따'는 유행어가 되었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 청소년 통계에 조사된 바로는 2007년 이래로 계속해서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국가와 실천현장, 학계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수년간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Lee, Jimin,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38541, Korea, Tel: +82-53-810-2866, Fax: +82-53-810-4667, E-mail: ljimin@y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5.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양상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데, 크게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과소통제(undercontrol)와 관련된 문제로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등을 포함하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과잉통제(overcontrol)와 관련되어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으로 자신의 내적 감정과 태도로 표현되는 문제를 말한다(T. M. Achenbach & C. S. Edelbrock, 1978; S. P. Hinshaw, 1992; K. H. Rubin & A. E. Kennedy, 2002). 지금까지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청소년의 비행과 공격성 등과 같이 보다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고(H. S. Jwa, 2010), 내재화 문제행동에 포함된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 주제이며 극히 제한되어 있다(K. M. Chung, M. J. Shin, J. H. Kang, & E. S. Kim, 2013; B. J. Lee, W. H. Min, & J. E. Kim, 2014).

사회적 위축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회피하거나 상호작용 중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행동적 경향성이라 정의된다(S. Bayram Özdemir, C. S. Cheah, & R. J. Coplan, 2015). 위축된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또래 집단에 섞이지 않고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결도는 행동들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잃고 대인관계적 발달 기회를 놓치기 쉽다.

사회적 위축은 실제로 청소년기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며(Y. J. Cho, H. W. Ju, & M. H. Hyun, 2015), 또한 그 영향력이 청소년기의 한 시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W. J. Lee & H. J. Jung, 2010). 위축된 아이는 자존감이 낮고(M. J. Boulton & P. K. Smith, 1994), 그들의 위축 행동은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와 고립, 거부, 무시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J. C. Bowker & R. Raja, 2011; B. J. Lee et al., 2014). M. S. Yun and D. H. Lee(2015)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괴롭힘 피해,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 I. Nam, B. Y. Nam, and E. H. Jang(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살생각 높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위축에 관한 최근의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쾌감상실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현상) 등의 임상적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 J. Colpan et al., 2013). U. Heinze and

P. Thomas(2014)는 사회적 위축 청소년에 대해 그들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 '강력한 유형(hard core)'과 바깥출입이 있고, 때로는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는 '가벼운 유형(soft)'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T. M. Li and P. W. Wong(2015)은 발달적 이론으로 J. M. Bowlby의 애착이론과 E. H. Erikson의 사회발달이론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요소로 심리적(의존성 등), 사회적(가족, 학교 등), 행동적 요인(외출유무 등)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그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긍정적·부정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행동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환경적 요인인 가정 요인에 초점을 두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가르치는 방법이며,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된다(M. Fishbein & I. Ajzen, 1975). 부모의 양육태도는 1910년대의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함께 P. M. Symonds(1949), E. S. Schaefer(1959), W. C. Becker(1964), D. Baumrind(1971), R. P. Rohner and S. M. Pettengill(1985) 등 많은 학자에 의해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유형화되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양육태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B. Y. Sohn, S. J. Kim, J. A. Park, and Y. H. Kim(2012)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으로 구성되는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양육태도의 특성에 따라 각 양육태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서로 다르므로 긍정,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묶어 설명하였을 때는 각 양육태도가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그 중에서도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즉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부모의 애정(affection), 지지(support), 온정(warmth), 관심(attention)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S. H. Lee(2008), S. G. Lee(2008)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합리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S. H. Sohn et al.(2001)은 정상 집단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의 집단에서 양쪽 부모로부터 애정적 양육이 더 유의하게 적음을 보고하였다. H. J. Baek and H. J. Hwang(2006)은 부모의 학대와 같은 양육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우울하고 위축되게 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M. H. Noh, M. J. Heo and Y. S. Choi(2015)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학교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Y. J. Cho et al.(2015)은 그들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양육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덜 느끼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는 청소년으로부터 하여금 주눅감과 위축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하여 비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사회적 위축을 설명하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들로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M. Boivin, S. Hymel, & W. M. Bukowski, 1995; R. J. Coplan & K. H. Rubin, 2004). 상호작용에 있어 불안감을 선행적 경험으로 가진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경우 위축 행동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과 불안은 사회적 위축을 상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위축이 우울과 불안과의 높은 관련성이 제시되기도 하여 부정적 순환과정의 관계로 전제되기도 한다(B. J. Lee et al., 2014).

위와 같이 사회적 위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내적 어려움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T. M. Li and P. W. Wong(2015)의 관점과 같이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긍정 요소를 염두에 두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의 보호요인으로써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는 외적 자극으로부터 잠재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기회로 전환하려는 기제를 의미한다(M. Rutter, 1979). M. H. Kim and S. H. Kim(2010)은 한국의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하위요인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탄력적인 청소년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과 타인,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상호작용 욕구와 그에 대한 불안감을 인정하며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다수 이뤄졌으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한정적이다. 사회적 위축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와 자아탄력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M. J. Kim(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 A. Han and H. S. Doh(2008)의 연구가 있다. M. J. Kim(2005)은 아동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음, 낮음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높

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낮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H. A. Han and H. S. Doh(2008)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A. S. Masten, 2001), 그 중에서도 자아탄력성은 가정적 변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 A. Han & H. S. Doh, 2008; S. G. Yu, S. H. Hong, & B. Y. Choe, 2004). G. Y. Cho and E. H. Lee(2007)는 초기 청소년(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성장 초기에는 중요하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며 가정변인 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한 J. R. Harris(1995)의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My Memories of Upbringing; EMBU-short)’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제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표집된 대상은 D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86명이다. 본 연구에 대한 설문은 해당 학교의 학급별로 관련된 사항의 이해를 위하여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참여자 각각의 구두동의를 구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다. 배부된 총 600부 중 596부를 회수하였고, 부실 기재된 10부를 제외하고 총 586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W. A. Arrindell, E. Sanavio, G. Aguilar, and J. Ende(1999)가 개발하고 H. I. Jo(2011)가 변안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My memories of upbringing’의 스웨덴 동의어인 Eгна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EMBU-short)를 수정·보완하고 부·모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이며 애정적 양육태도(8문항), 과보호적 양육태도(8문항), 거부적 양육태도(7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애정적 양육태도요인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거의 드물게(1)’에서 ‘대부분으로(4)’의 4점 척도(총점범위: 8-32)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뜻대로 일이 잘 안되게 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아버지(어머니)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849,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각각 .868,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T. D. Little, W. A. Cunningham, G. Shahar, and K. F. Widaman (2002)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문항꾸러미 만들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먼저, 주성분 분석추출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서 요인수를 1개로 고정된 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하였으며, 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정렬된 문항들을 부하량이 큰 문항과 낮은 문항으로 zigzag 방식으로 3개의 꾸러미에 각각 배정하였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M. H. Kim and S. H. Kim(2010)이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9문항으로 긍정사고(10문항), 문제해결(9문항), 친밀행동(7문항), 감정 조절(6문항), 자율행동(7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갖는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이며(총점범위: 39-195),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힘든 일이 생겨도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긍정사고 .911, 문제해결 .873, 친밀행동 .850, 감정조절 .802, 자율행동 .735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경우 .91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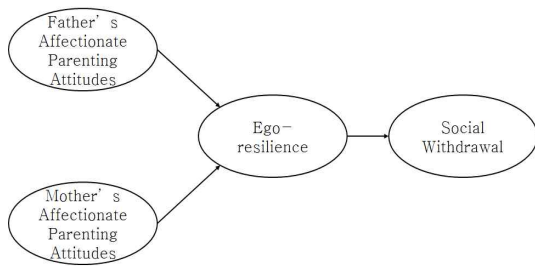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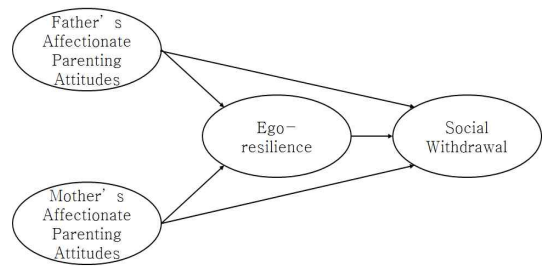


Figure 2. Alternative Mode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586)

Variables		n	%	Variables		n	%
Gender	Male	291	49.7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327	57.7
	Female	295	50.3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239	42.3
School Affiliation	Academic track	294	50.2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410	72.9
	Vocational track	292	49.8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152	27.1
Average Score	High-level	181	30.8	Subjective Economic Level	High-level	63	10.7
	Mid-level	203	34.6		Mid-level	329	56.1
	Low-level	202	34.5		Low-level	194	33.1

Note. Father and Mother Education is analysed except missing data.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척도는 T. M. Achenbach(1991)가 제작하고, K. J. Oh, H. L. Lee, E. H. Ha, and K. H. Hong(1997)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를 D. H. Jang(2001)가 재구성한 것 중, 사회적 위축 요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총점 범위: 5-2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는 말이 거의 없는 편이다.', '나는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편이다.', '나는 남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등 5개 문항을 포함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95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 또한 단일지표변인이므로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써 위와 같이 2개 묶음으로 문항꾸러미 만들기(item parcelling)를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변인들의 특성(평균, 표준편차, 정상 분포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관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실행을 위한 사전 단계로 문항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구조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검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요구되는 모형적합도로 모형과 자료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통계량은 표집 크기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해석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TLI, RMSEA,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오류를 측정하는 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H. S. Lee & J. H. Lim, 2013). RMSEA는 .05 이하로 나타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M. W. Browne & R. Cudeck, 1992). 끝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위해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과 기술통계치

각 변인간의 관계와 수집한 자료가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점검한 결과 정규성 가정(왜도 < |2.0|, 첨도 < |4.0|)을

Table 2. Correl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variables (N=58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658***	-											
3	.567***	.713***	-										
4	.494***	.400***	.302***	-									
5	.373***	.561***	.378***	.690***	-								
6	.368***	.443***	.314***	.665***	.784***	-							
7	.253***	.328***	.236***	.364***	.410***	.408***	-						
8	.193***	.182***	.142***	.173***	.185***	.223***	.537***	-					
9	.212***	.244***	.234***	.262***	.263***	.262***	.520***	.356***	-				
10	.097*	.068	.066	.112**	.088*	.091*	.255***	.270***	.053	-			
11	.183***	.184***	.150***	.133**	.118*	.117**	.208***	.197***	.280***	.150***	-		
12	-.077	-.116**	-.117**	-.061	-.091*	-.076	-.337***	-.141***	-.503***	.123**	-.279***	-	
13	-.124**	-.144***	-.139***	-.115**	-.133**	-.149***	-.307***	-.214***	-.426***	-.024	-.351***	.631***	-
M	2.145	2.388	2.174	2.354	2.638	2.502	3.688	3.193	3.483	3.246	3.156	2.386	2.374
SD	.701	.792	.792	.729	.782	.793	.668	.622	.664	.679	.545	.969	.813
SK	.286	.109	.344	.233	-.093	-.030	-.023	.386	.221	-.224	.013	.233	.150
KU	-.394	-.722	-.566	-.400	-.768	-.631	-.287	1.104	-.120	.123	1.167	-.658	-.285

* $p < .05$, ** $p < .01$, *** $p < .001$

Note. 1: F-APA-1(Father's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1), 2: F-APA-2, 3: F-APA-3, 4: M-APA-1(Mother's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1), 5: M-APA-2, 6: M-APA-3, 7: Positive thoughts, 8: Problem-solving, 9: Friendly behavior, 10: Emotional regulation, 11: Autonomous behavior, 12: Social withdrawal-1, 13: Social withdrawal-2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은 대부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위축은 대부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일부 감정조절 요인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1단계로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RMSEA = .065, TLI = .942, CFI = .958으로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인과 잠재변인간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요인부하량(β)은 자아탄력성의

감정조절과 자율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고,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 검증에서 감정조절과 자율행동은 각각 .376, .343으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M. H. Kim and S. H. Kim(2010)의 연구에서 이미 타당화된 척도이므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chi^2(df)$, RMSEA, TLI, CFI 지수를 이용하였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하는 연구모형(RMSEA = .064, TLI = .943, CFI = .958)과 부분 매개하는 대안모형(RMSEA = .065, TLI = .942, CFI = .958)은 모두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Table 3.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χ^2	df	RMSEA(LO90-HI90)	TLI	CFI
192.707***	56	.065(.055-.075)	.942	.958

*** $p < .001$

Table 4. Factor Loading for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B	β	SE	CR(t)
Father's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F-APA-1	1.000	.725		
	F-APA-2	1.426	.917	.072	19.900***
	F-APA-3	1.200	.770	.066	18.203***
Mother's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M-APA-1	1.000	.764		
	M-APA-2	1.269	.904	.055	23.182***
	M-APA-3	1.237	.865	.056	22.137***
Ego-resilience	Positive thoughts	1.000	.816		
	Problem-solving	.693	.607	.053	13.099***
	Friendly behavior	.790	.649	.057	13.882***
	Emotional regulation	.354	.376	.057	6.016***
	Autonomous behavior	.343	.343	.046	7.463***
Social Withdrawal	Social withdrawal-1	1.000	.665		
	Social withdrawal-2	1.164	.896	.137	8.506***

*** $p < .001$

Table 5. Fit Indices for Research and Alternative Model

Model	χ^2	df	RMSEA(LO90-HI90)	TLI	CFI
Research Model	196.715***	58	.064(.054-.074)	.943	.958
Alternative Model	192.707***	56	.065(.055-.075)	.942	.958

*** $p < .001$

2이고 x^2 값 차이는 4.008로 유의수준 .05에서 x^2 의 임계 값인 5.99보다 작으므로 자유도가 더 큰 간명한 완전매개의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하며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4. 연구모형 검증과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으로 선택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 <Figure 3>과 같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부: $\beta = .200, p < .001$, 모: $\beta = .383, p < .001$)에,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위축($\beta = -.484, p < .001$)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직·간접효과에 따른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위축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상한~하한값은 <Table 7>의 각 경로별로 괄호 안에 나타나있으며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간접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지며, 높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Final Model

Path	B	β	SE	CR(t)
F-APA → Ego-resilience	.180	.200	.049	3.661***
M-APA → Ego-resilience	.307	.383	.044	6.911***
Ego-resilience → Social Withdrawal	-.546	-.484	.080	-6.85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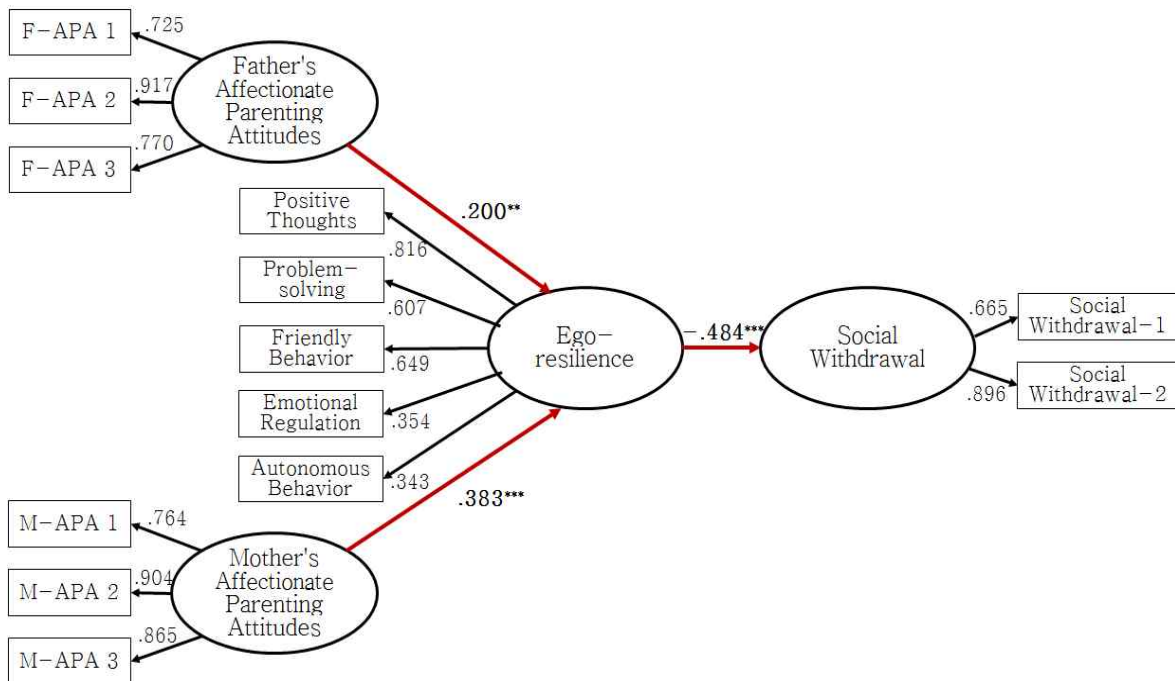


Figure 3. Verification Result for Final Model

Table 7.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	Total
Direct	F-APA	→ Ego-resilience	.200*** (.087 ~ .304)
	M-APA	→ Ego-resilience	.383*** (.270 ~ .490)
	Ego-resilience	→ Social Withdrawal	-.484*** (-.585 ~ -.397)
Indirect	F-APA	→ Social Withdrawal	-.097*** (-.154 ~ -.038)
	M-APA	→ Social Withdrawal	-.185*** (-.251 ~ -.124)

*** $p < .001$

Note 1. Bootstrap = 200, Estimation is standardized coefficient.

2. The values for 95% confidence intervals for structural model paths, and that are inside of parentheses.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애정적 양육태도 및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위축과 대부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아탄력성은 높았고 사회적 위축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중 좀 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으로, 자아탄력성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감정조절 요인은 사회적 위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감정적 조절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과소통제(undercontrol)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달리, 과잉통제(overcontrol)된 내재화 문제행동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CCQ(California Child Q-Set)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와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 H. M. Ku and S. T. Hwang(2001)의 연구에서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임상적인 문제가 덜하며, 과소통제적인 사람들은 행동상의 문제(외현화 문제)를, 과잉통제적인 사람들은 정서적인 문제(내재화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잉통제적인 사람들이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를 보이기 쉬우나, 비행이나 과잉행동 등의 행동적 문제는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터키에서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형태를 개념화하고자 한 S. Bayram Özdemir et al.(2015)의 연

구에서도 '과잉통제(overcontrol)'에 대한 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비서구권 문화의 '질제된 위축(regulated withdrawal)'으로 불리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변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조용한 모습으로 있으며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과도하게 조절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조절행동의 기저 동기는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타인에게 자신을 수용 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나 자신이 수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통제하는 경향성이 있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고, 개입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쉽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 상담사,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에게 더욱 주의 깊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G. Y. Cho and E. H. Lee(2007), J. A. Jang and H. C. Shin(2006)의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다만,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5, 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G. Y. Cho and E. H. Lee(2007), J. A. Jang and H. C. Shin(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연구 대상의 연령차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직접적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J. R. Harris(1995)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매개함으로써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사회적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H. Grazelle and G. W. Ladd(2003)은 사회적 위축이 사회적 접근 동기와 동시에 사회적 회피라는 상반된 내적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임을 밝혔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타인과 교류하려는 동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불편했던 경험들로 인해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스스로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제공해주고 성공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모의 노력은 자녀가 어릴수록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해체와 다양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부모의 애정적 양육이 중요한 보호요인일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 이를 매개하는 자아탄력성 요인이 유의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노출되었거나 양육의 부재 및 사회적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천현장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후처방보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S. H. Lee, 2008), 사회적 위축에 자아탄력성이 효과적인 매개변인으로 나타나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E. S. Hong(2006)은 그의 연구에서 탄력성은 역경의 극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장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문제 상황을 만나고 그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처하며, 극복할수

록 더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아탄력성에 대한 이해와 그 능력을 증진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격적이고 비행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단지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치료학적 접근인 자기주장 훈련(R. S. Lazarus, 1966; J. Wolpe, 1968)과 L. S. Greenberg(2004)가 제안한 정서중심 치료(Emotion-focused therapy)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모형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위축에는 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차후 개인의 성차와 국가 간의 차이 등의 상황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통해 탐색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T. M. Li and P. W. Wong(2015)이 그들의 연구에서 말했듯이, 사회적 위축에는 긍정성과 부정성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인에 대한 접근성과 회피성 또한 긍정성과 부정성의 특징 중 각각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교사 및 청소년 현장 관련 실천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양상 이면에 긍정적 동기를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사전 예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 점과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위축된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 개입방법을 논의한 데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 85(6), 1275-130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rindell, W. A., Sanavio, E., Aguilar, G., & Ende, J. (1999).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EMBU: Its appraisal with students in Greece, Guatemala, Hungary, and Ita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4), 613-628.
- Baek, H. J., Hwang, H. J. (2006).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1-27.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103.
- Bayram Özdemir, S., Cheah, C. S.,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1), 142-16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 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315-329.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o, G. Y., & Lee, E. H. (2007). Early adolescent's ego-resiliency: Mediation link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family strength, and behavior problems. *Studies on Korean Youth*, 18(1), 79-106.
- Cho, Y. J., Ju, H. W., & Hyun, M. H.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59-81.
- Chung, K. M., Shin, M. J., Kang, J. H., & Kim, E. S. (2013).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male adolesc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using growth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77-197.
- Coplan, R. J., & Rubin, K. H.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4), 506-534.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sbury, M., & Bullock,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61-875.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Gazelle, H., & Ladd, G. W. (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 - 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1), 257-278.
- Greenberg, L. S. (2004). Emotion - focuse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1(1), 3-16.
- Han, H. A., & Doh,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01.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489.
- Heinze, U., & Thomas, P. (2014). Self and salvation: Visions of hikikomori in Japanese manga. *Journal of the German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Tokyo*, 26(1), 151-169.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ogical Bulletin*, 111(1), 127-155.
- Hong, E. S. (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 of *Special education*, 41(2), 45-67.
- Jang, D. H. (2001). *Intervention of social work services on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 Jang, J. A., & Shin, H. C. (2006).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3), 569-592.
- Jo, H. I. (2011).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69-287.
- Jwa, H. S. (2014).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hild abuse and aggression on harmful media overus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511-533.
- Kim, M. H. & Kim, S. H. (2010). Development of an ego-resilience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189-206.
- Kim, M. J. (2005). *The effect of 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ego-resiliency on the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 Ku, H. M., & Hwang, S. T. (2001). A validity study on ego resilience scale and ego control scale of California Child Q-set(CCQ).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345-358.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Y: McGraw-Hill
- Lee, B. J., Min, W. H., & Kim, J. E. (2014).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An exploratory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al-contextu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317-346.
- Lee, H. S., & Lim, J. H.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0.0*. Seoul: Jyphyunjae
- Lee, S. G. (2008).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relation between deviant peer's influences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121-151.
- Lee, S. H. (2008). A Study on the validity of protective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223-246.
- Lee, W. J., & Jung, H. J. (2010). Childhood experiences of violence and mental health in young peopl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4(3), 385-407.
- Li, T. M., & Wong, P. W.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 (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7), 595-60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
- Nam, S. I., Nam, B. Y., & Jang, E. H. (2014).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withdrawn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57-80.
- Noh, M. H., Heo, M. J., & Choi, Y. S.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19-134.
- Oh, K. J., Lee, H. L., Ha, E. H., and Hong, K. H. (1997). *K-CBCL child youth behavior checklist*. Seoul: Ceteral Aptitude Publisher.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Rubin, K. H., & Kennedy, A. E. (2002).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hild psychopathology(2nd ed., pp. 372-402). NY: Guilford.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49-74). Handover, NH: University New England.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 Sohn, B. Y., Kim, S. J., Park, J. A., & Kim, Y. H. (2012).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49-173.

Sohn, S. H., Noh, K. S., Huh, M. Y., Jung, H. O., Lee, S. H., & Kim, S. J. (2001). A stud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605-615.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2016 Youth statistics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Wolpe, J. (196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Conditional Reflex: A Pavlovian Journal of Research & Therapy*, 3(4), 234-240.

Yu, S. G., Hong, S. H., & Choe, B. Y. (200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93-408.

Yun, M. S., & Lee, D. H. (2015).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9), 301-326.

Received: May 15. 2016

Revised: August 21. 2016

Accepted: August 25. 2016